

농어촌공사, 전남 저수지 185곳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구축

[장아름]



노치저수지 제방 누수 계측기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지역 내 저수지 185곳에 재해 예방 계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재해 예방 계측 시스템은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 계측 장치를 통해 지진 영향, 제방 누수, 사면 변위 등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재해를 사전에 예·경보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안전 골든타임' 확보 역할을 한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주요 저수지를 대상으로 계측 기반 시설(인프라)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500만 m^3 이상 대형 저수지 11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30만 m^3 이상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237곳에는 제방 누수 계측기를 설치했다.

제방 높이가 높은 취락 저수지 44곳에는 제방 변위계를 운용하여 제방의 변형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올해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85곳에 폐쇄회로(CC)TV와 저수위계 등 계측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해 대비 통합계측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줄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